

자료제공 : 2026. 7. 8.(화)

이 보도참고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담당 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복합개발
추진단장

권순환

02-6438-2808

사업총괄과장

박노성

02-6438-281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

市, GTX-A 삼성역 철근누락 관련해 국토부 공문에 명시된 보고절차 이행

- '23년 국토부 공문 “市가 철도공단에 제출, 공단이 국토부 공유” 공정관리 보고체계 명시
- 市, 철근누락 확인 후 '25.11.~'26.4. 총 6차례 공문으로 공단에 관련 내용 통보
- 국토부 공유 지연, 市 보고 누락이 아닌 공단의 검토·공유 절차 미이행에 따른 것

☐ 8일 머니투데이 보도(「철근누락 보고라인, 국토부 앞에서 끊겼다」)와 관련해, 서울시는 GTX-A 삼성역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철근누락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정한 공식 보고절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정상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2023년 1월 11일 서울시와 철도공단 등에 보낸 「GTX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정계획 검토회의 결과」 공문을 통해, GTX 삼성역 구간 공정관리 관련 보고체계를 명확히 정한 바 있다.

☐ 해당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철도공단에 제출하고, 철도공단이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시가 공단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검토한 뒤 국토부에 공유하는 방식의 상시 보고체계가 정립된 것이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시공사와 감리단으로부터 철근누락 사실을 보고받은 뒤, 같은 달 13일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철근누락 및 기둥 보강계획 등이 포함된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했다.

○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건설사업 관리보고서를 제출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철근누락 관련 사항이, 이후 3개월간은 보강공사 및 안전대책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철도공단은 해당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서울시에 별도 보완 요청이나 문제 제기, 추가 보고 요청 등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 따라서 국토부에 철근누락 시공오류 보고가 지연된 것은 서울시가 보고절차를 누락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국토부 공문상 보고체계에 따라 철도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해 국토부에 공유하는 과정이 제때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붙임

국토부 공문 및 공정계획 검토회의 결과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GTX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정계획 검토회의 결과 송부

1.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 '23.1.10(화)', 우리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회의실에서 실시한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정계획 검토회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토회의('23.1.10) 결과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동남권추진단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주무관	안남현	시설사무관	심보경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안재혁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	이경석	2023. 1. 11.
-----	-----	-------	-----	------------	-----	------------	-----	--------------

협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시행 (2023. 1. 11.) 접수 동남권추진단-413
-100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978 /전송 044-201-5609 / moonlight@molit.go.kr / 비공개

GTX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정계획 검토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시) '23. 1. 10.(화) 14:00 ~ 16:00
- (장소) 세종청사 5동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회의실
- (참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 대광위 광역환승과장 등
서울시: 동남권사업반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등
철도공단: GTX부장 등, 설계사: 동명·도화 담당자 등

□ 주요 논의내용

- GTX-A는 수도권 주민편의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서울시가 담당하는 삼성역 구간의 조속 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
 - 서울시 제시한 공정계획(안) 상 GTX-A 구조물 인도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만회대책 강구
- (실시계획) 서울시는 본공사 착공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완료(1분기 목표)
 - * 현재 서울시는 재해영향평가 및 지하안전성평가 관계기관 재협의를 필요한 상황
- (공정검토) 공정계획(안)에 대해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적정성 및 공사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한 합동 기술검토 추진
 -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 시공사·설계사도 함께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 논의할 수 있도록 현장에 별도 장소 마련(서울시)
- (사업관리) 서울시-공단 협약(21.7)을 준수하여 서울시는 매월 사업관리 보고서를 철도공단에 제출하고, 철도공단은 검토 후 국토부와 공유

□ 향후계획

- 공정계획(안)에 대한 기술검토,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
 - * 기술검토 결과는 필요시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에 상정·논의 예정